목포 평화광장 앞바다서 '짜릿한 손맛' 즐겨요

12월 10일까지 선상 갈치낚시 진행…지난해 1만명 돌파
전국체전 등 앞두고 관광 활성화 기대감…안전점검 강화

목포시는 오는 12월10일까지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갈치낚시 어선을 운영한다. 관광객이 평화광장 갈치낚시를 즐기는 모습. 〈목포시 제공〉

목포 평화광장 야경과 함께 즐기는 갈치낚시가 오는 12월10일까지 112일간 운영된다.

목포시는 '2023년 목포 평화광장 갈치낚시' 진행을 위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어선 37척에 대한 한시적 낚시 허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평화광장 앞바다는 항만구역으로,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조업이 금지됐다. 목포시는 관광객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시적 낚시 허가를 받고 이번 행사를 운영한다.

갈치낚시는 지역 어업인 소득을 높이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회복되고 오는 10~11월에는 104회 전국체전과 43회 장애인체전 등 전국 규모 행사가 목포에서 열려 갈치낚시가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목포시 측은 기대했다.

목포 평화광장 갈치낚시 이용객은 광장 앞바다에서 선상 낚시를 즐길 수 있다. 낚싯배는 북항, 남항에서 출발해 20분가량 이동해 낚시할 수 있다.

갈치낚시는 초보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다. 낚시 영업이 끝나는 새벽에 시작되는 목포수협 위판장의 모습도 목포 여행에 쏠쏠한 재미를 안겨준다.

목포 평화광장 갈치낚시 이용객은 지난해 1만 537명으로, 전년(3929명)보다 168.2% 증가했다.

목포 평화광장 갈치낚시는 포털 사이트에서 '평화광장 갈치낚시'를 검색한 뒤 전화 예약하면 된다.

목포시는 갈치낚시 운영에 앞서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 수협중앙회 목포어선안전조업국과 합동 안전점검을 했다.

합동 점검단은 ▲어선의 긴급구난, 기상특보 수신 등에 필요한 통신수단 확보 및 작동 여부 ▲구명조끼·구명부환 및 소화기 등 구명 소방설비 구비 여부 ▲화재 위험성 여부·전기설비 상태 ▲해양오염 방지 설비 여부 ▲출입항 신고 및 관리 종사자의 안전전문교육 이수 등을 살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갈치낚시를 통한 관광객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며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귀신의 집·호러 퍼레이드…
씬나부네 썸머나이트

진도군, 25일 축제 개최

진도군이 오는 25일 오후 6시부터 진도읍 아리단길 일원에서 '씬나부네 썸머나이트'를 개최한다.

진도 상권 르네상스 '흥나는 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도읍 남문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난 6월 문을 연 어울림센터(옛 우체국)에서 귀신의집, 호러퍼레이드, 귀신분장 체험, 호러 포토존 등 풍성하고 다양한 즐길 거리와 야시장 등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우수 참가자에게 당일 행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증정해 지역 주민과 상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꾸민다.

진도군 관계자는 "침체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깡깡섬·마시땅콩…신안군 경쟁력 갖춘 농가 상품 개발

농민 11명 참여 지역 특성·소비자 감수성 맞춘 21개 품목

신안군이 농산물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농가 상품 21개 품목을 개발했다.

신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6차례에 걸쳐 지역 농가 11명과 상품〈사진〉 개발을 했다.

이번에 개발한 상품은 모두 21개 품목으로, 신안군은 특허청 상표 출원도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지역적 특성과 소비자 감수성, 최신 동향에 맞게 상표를 설계했다.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태어난 농가 상품은 '깡깡섬'(지도읍 청년 농업인 애플망고, 섬농산물), '마시땅콩'(자은면 땅콩), '신안 20력 흑염소'(압해읍 청년 농업인 흑염소), '신안꾹'(비금면 섬초·농산물) 등이다.

이들 상품에 대해서는 제품 스티커와 상자 포장 디자인 등을 개발했다.

신안군은 지역 농가의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마케팅 과정, 라이브커머스(생방송 판매) 교육 등 농가 수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 '마시땅콩'을 새로 단장한 표혜은 씨는 "기존에 브랜드가 없어 온라인 판매, 소비자 직거래 등 판매의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개발된 브랜드를 활용해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들을 선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민원담당 직원 보호" 영광군 영상기록 장비 배부

영광군이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웨어러블 캠·사진) 14대를 배부했다.

영광군은 최근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 사무소 직원들에 휴대용 보호장비 14대를 나눠주고 장비 사용법과 사용지침, 개인정보 보호 유의사항 등을 교육했다.

이 장비는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폭언과 폭행 등 위법 행위를 기록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걸이 형태 카메라로, 전·후방 촬영과 녹음을 할 수 있다. 착용 공무원은 민원인에 녹화 사실을 미리 알리고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영광군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영광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민원 응대 과정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때 사전 고지 후 제한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직원과 민원인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

세 살부터 여든까지 지구를 지켜라

해남군, 내달 2일 제1회 자원순환 페스타 개최

해남군은 다음 달 2일 군민광장 일원에서 '1회 해남군 자원순환 페스타'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원순환의 날(9월6일)을 앞두고 자원순환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세 살부터 여든까지 지구를 지켜라'를 주제로, 해남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사업 성과를 소개한다.

행사에서는 자원순환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과 해남형 ESG·자원순환사업 사례 발표 등이 진행된다.

행사장에서는 자원순환과 관련한 27가지 전시·홍보 공간이 마련된다.

방문객들은 탄소중립 실천 임무를 수행하고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고) 장터, 물물 교환 등에 참여한다.

친환경 주방세제와 머리 비누, 향초, 폐목재 활용 제품 등도 만들 수 있다.

어린이 방문객들은 분리배출 체험과 각종 문제 풀이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에 다회용기를 가져오면 음료를 무료로 받는다.

해남군은 이번 행사에서 현수막 대신 골판지와 쓴 천을 활용해 제품을 제작할 방침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체험 활동을 준비했다"며 "군민들이 행사에 참여해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에 대한 자신만의 실천 습관도 갖고 추억도 쌓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위기가정 구호" 영암군 응급안전안심 대상 확대

영암군이 위험에 빠진 가구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로 응급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영암군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 대상자 기준을 기존 고령 1인 가구에서 고령자 부부, 조부모-손주 가구 등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확대에 따라 영암지역에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받는 가구는 1342곳으로 늘어난다.

응급안전안심 장비는 응급호출기와 화재·활동량·출입 감지기 등으로 구성됐다.

집에 불이 나면 119에 자동 신고되도록 설계됐다. 또 거주민의 활동량이 감소하는 등 쓰러짐이 의심되면 응급관리 요원에게 신호가 전달돼 바로 안부 확인에 나서도록 한다.

직접 가정에 설치된 호출기를 눌러 119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올해 들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통한 응급상황은 모두 341건 접수됐다. 응급 신속 신고 37건과 활동량 감소 자동 신고는 304건 등이었다.

신고를 받은 소방서와 자활센터 응급요원은 출동하거나 안부 전화를 걸어 신속하게 조치했다.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영암지역자활센터에 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첨단기술로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도 더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착색료 감미료 합성향료 無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